PEOPLE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연합회

농업인 발굴 장학금 300만원 기탁

담양군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가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는 663명의 회원이 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꾸준한 장학금 기탁으로 올해까지 누적 2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정범 회장은 "장학금을 통해 지역 인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웅 기자

농협 전남본부 영농지원 발대식

조생양파 수확 돕기·환경정화 활동

농협 전남본부는 10일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희망농업·행복농촌을 열어가는 2025 전남농협 영농지원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함평군 관내 조합장 및 임직원,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상익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정혜숙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회장, 안순우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영농인력지원 26만명 △농작업 대행 65만ha △지자체협력사업 100억원 △농촌봉사활동 1만명 추진 등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발대식 종료 후 조생양파 수확 일손 돕기와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환경공단

미혼모 보호시설 생활환경 개선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최근 대한사회복지회 산하 미혼모 보호시설 '편한집'을 방문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광주환경공단 2하수관리처 송대운영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시설 내 잡초 제거 및 제초제 살포, 어린이 놀이터 정비, 정원 조경 관리, 기부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실질적인 환경 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공단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시설 운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양동민 기자 yang00@

스타트업 혁신기술 헬스케어 분야 접목 '맞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지역의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창경센터-빛고을노인타운 업무협약
창업아이템 실증 상용화·판로개척 등 노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지역의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검증받고 실제 시장에 상용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프라와 솔루션을 활용, 노인 건강 관리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과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협력한다.

광주창경센터는 창업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템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기술들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협력해 창업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업문화 확산과 헬스케어 분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실사용자의 피드백을 제공받아 창업 아이템이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제공하는 실증 환경을 통해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며 지역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상용 광주창경센터 대표이사는 "광주가 인공지능 창업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창업기업들의 기술 상용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센터는 지역의 창업허브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창업기업들이 기술 실증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다음 참여자로 이정선 교육감·이근배 전남대 총장 지목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은 지난 9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강기정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강기정 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청년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제2차 광주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가능 일자리로 인구유입 경제 실현, 활력있는 공간 조성,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올해 손자녀 돌보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출생·양육·돌봄 분야의 선도적 정책들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관광재단(대표 김영신)과 연세대학교언어교육연구원(원장 이석재)은 10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K-컬처 중심 전남도를 한국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홍보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관광재단-연세대언어교육연구원 협약

'K-컬쳐 중심 전남도'…글로벌 홍보 강화

전남도관광재단(대표 김영신)과 연세대학교언어교육연구원(원장 이석재)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K-컬처 중심 전남도를 한국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홍보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운영중인 '남도고택체험프로그램 사업'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전남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남 특화 한국문화 체험 제공 △전남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남도미식 체험 기회 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모집 체계 구축 △연세대학교 외국인 학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홍보강화 △외국인의 문화적 이해도를 고려한 체험형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대외 홍보 확산을 위한 언론 인터뷰 및 SNS 콘텐츠 제작을 통한 글로벌 홍보 강화 등이다.

전남도 관광재단 김영신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류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전남도 관광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K-컬처와 K-푸드를 연계한 전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인재양성 팔 걷어

이스트소프트·KOSA·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약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최근 AI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네이버클라우드와 '대한민국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스트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서성일 KOSA 부회장,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산업 발전에 있어 특화 인재 확보·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I 특화형 교육 커리큘럼 구축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 AI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산업과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AI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는 "AI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준이 LLM과 반도체 등 기반 기술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내는 응용과 확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여느 때보다 AI 인재 양성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농협 광주본부,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는 10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아이위드유치원에서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아이들은 쌀로 만든 영양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쌀알을 관찰하며 오감을 활용한 놀이를 즐겼다.

또한 쌀이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쌀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이러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쌀밥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해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선관위, 대선 선거관리 회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 사무처장 및 5개 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동구, 행정환경 적응 특별강연 광주시 동구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정여울 작가를 초청, 공감과 치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감수성을 주제로 행정환경 적응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